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0

## 우즈베키스탄

### I.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sup>2</sup>	G D P	259.7억 달러(2008년)
인구	27.2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955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um(숨)
대외정책	친러 관계 강화, 서방과의 관계 개선 도모	환율(달러당)	1,383(2008년)

- 1991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720만명(중앙아시아 최대)으로서 면화를 비롯하여 금, 아연, 우라늄 등 각종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음.
-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연 7~9%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인당 GDP가 955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카리모프 대통령이 1989년 이래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200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됨에 따라 권력기반이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민주화 가능성은 낮아 보임.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4.2	7.7	7.0	7.3	9.5	8.6
재정수지 / GDP	0.1	0.6	1.3	0.5	2.1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6.6	10.0	14.2	12.3	12.0

자료 : IFS 및 EIU

#### □ 실질 GDP 성장률 다소 둔화

- 2008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대외경제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2008년 동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9.5% 대비 다소 둔화된 8.6%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러시아의 심각한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해외근로자의 송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08년보다 대폭 하락한 2.5%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추세의 급격한 전환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임.

#### □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둔화 전망

-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 임금 및 복지수준의 계속된 인상으로 동국의 물가상승률은 12%를 기록하였음. 하지만, 2009년에는 수입식료품 가격 및 원유 가격의 하락 등의 요소로 인해 6.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재정수지 소폭 적자 전환

- 2008년 재정수지는 사회보장 비용, 국방, 치안 등의 지출요소 등으로 인해 GDP의 0.5% 수준의 적자 예상. 2009년 역시 동 부문의 지출과 함께 기초 식료품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출 등이 예상되어 전년보다 다소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09년 1.2% 적자 전망)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금, 면화 등 1차 산업과 러시아 위주의 편중된 무역구조

- 금과 면화의 수출비중이 총 수출금액 대비 약 49.3%로 과다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에너지, 통신, 광산 등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는 거의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함.
- 최대 교역상대국은 러시아(2006년 수출의 23.8%, 수입의 27.8% 차지)로서 자동차,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기계장비, 음식료,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한국과의 교역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2008년은 2007년 852 백만 달러에 비해 63% 증가한 1,386 백만 달러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였음. ('08년 對한국 주요 수출품 : 우라늄, 면사, 주요 수입품 : 자동차 부품, 승용차)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역국은 서방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 등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음.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높아 러시아의 경기변동에 따라 동국 경제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 부존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양호

- 금은 세계적 매장량(매장량 세계 6위, 생산량 세계 10위권)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제 1의 수출품(총수출액의 약 27.6%)이며 우라늄, 아연 등 광물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국은 2008년 총 153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는데 이 중 130억 m<sup>3</sup>를 러시아에 수출하였음. 2009년 1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문시, 러시아의 가스프롬사에 2009년 한 해 동안 총 160억 m<sup>3</sup>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양국간 합의 하였고, 2009년 가스 수출단가를 2008년 1,000 m<sup>3</sup> 당 U\$140에서 115% 인상된 U\$301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가스 수출단가 역시 2008년 1,000 m<sup>3</sup> 당 U\$145에서 U\$24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천연가스 수출은 동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 수입제한조치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주주 지위 제한

- 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본재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재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 유지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부진한 개혁성과,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효율성과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금 및 보석 광산, 석유 및 가스 생산, 항공, 교통 등을 전략적 산업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881	1,215	1,949	2,872	4,267	5,626
경 상 수 지 / G D P	8.7	10.1	14.3	16.9	19.1	21.7
상 품 수 지	835	1,202	1,447	1,940	2,296	3,360
수 출	3,240	4,263	4,757	5,530	8,026	9,840
수 입	2,405	3,061	3,310	3,590	5,730	6,480
외 환 보 유 액	1,659	2,146	2,895	4,459	7,413	10,150
총 외 채 잔 액	4,912	4,833	4,302	3,892	3,927	3,948
총외채잔액 / GDP	48.6	40.2	31.5	22.9	17.8	15.6
D. S. R	21.3	20.6	13.8	12.4	8.4	7.4

자료: EIU, IMF

##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 동국의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품이 면화, 금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가스, 자동차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금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해외근로자(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송금 지속,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통과료 수입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8년 21.7%를 시현하였음.

- 하지만 2009년에는 러시아와의 성공적인 가스가격 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경기 침체 및 해외송금 유입액의 감소 등으로 인해 동 성장세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2009년 17.5% 예상)

#### □ 외국인 투자환경 여전히 미흡하나 차츰 개선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개방 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CIS 국가 중 가장 부진한 국가 중 하나이나, 최근 양호한 경제 성장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06년 2억 달러, '07년 2.6억 달러, '08년 3억 달러 추정). IMF는 2008년 말 외국인 투자누계액이 2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카리모프 재선에 따라 수입억제정책, 투자환경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2008년 들어 러시아가 석유·가스(Lukoil, Gazprom) 및 통신(Vimpelcom) 부문에 가시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도 에너지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동국이 수출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FDI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치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동국 정부는 2008년 12월 NAVOI 시의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고, 이곳에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여전히 FIEZ 관리·운영을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 향후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 외채 상환 능력 개선

- 외환보유액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증대, 에너지 부문의 FDI 유입, 수입억제 및 외환통제 등에 힘입어 '08년 말 외환보유액은 GDP의 39% 수준인 101.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총 외채잔액은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외채의 증가가 거의 없음(48억 달러, 2004년 말 GDP의 40% 수준). 하지만 최근 수 년간의 양호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GDP의 15.6%(3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함.

- 총외채는 순증가분이 없고 대부분의 외채도 중장기 공적채무인데다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D.S.R은 2004년 20.6%에서 2007년 8.4%, 2008년 7.4%로 크게 하락하였음.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카리모프, 장기집권 체제 구축

- 구소련 붕괴 이전인 1989년에는 공산당의 대표로, 1991년 독립 이후에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카리모프(I. Karimov)는 정치 및 경제자유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야당 등 반대파 존립근거 박탈, 언론·방송 장악, 외국 NGO 추방 등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음.
- 특히 1995년 대선,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7년)을 위한 국민투표 등이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는 공고화되고 있음.

##### □ 후계구도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 카리모프 대통령이 2007년 12월 실시된 7년 임기의 대선에서 88%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우즈벡의 민주화와 투명성에 대한 전망은 높지 않음.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는 주도적인 반대세력의 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그러나, 카리모프가 70세의 고령인 데다가, 후계자가 불투명하여 그가 권좌를 물러날 경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

-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 및 통신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안디잔 사태에 대한 카리모프 정권의 입장을 옹호함에 따라 양국간 정치·경제·군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됨.

- 한편, 동국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탈퇴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9년 1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의 관계가 여전히 긴밀함을 보여줌.
-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에 있고, 2010년까지 6억 달러를 투자해 3G 및 통신망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할 계획.
- 중국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

#### □ 미국, EU 등 서방과는 차츰 관계 개선

- 미국과는 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소극적 지원, 안디잔 사태를 계기로, EU와는 인권문제로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해졌고 미국 및 EU는 경제원조 중단 및 안디잔 관련 고위 공무원의 해외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유럽 지역안보전략에 따라, EU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해가 맞물려 점차 우즈베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 특히, 2008년 10월, EU의 제재 완화 조치 및 동국의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탈퇴를 계기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차츰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러시아, 중국과는 여전히 굳건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강력한 통치체제로 사회적 안정 얻고 있음

- 2008년 임금인상 및 복지지출 확대 등 선심성 재정지출 확대로 국민들의 환심을 샀고, 금 및 면화 수출에 따른 과실(windfall) 증가와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등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인데 힘입어 사회 불안정의 여지는 적음.



- 게다가 카리모프 대통령 집권 이후 수년간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하여 카리모프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거의 부재한 상태임.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발생위험은 상존

- 2007년 카리모프의 재집권 이후 인권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모스크 사원을 거부하는 이슬람교도와 비민주, 비서방, 비유대를 주장하는 이슬람 세력,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우즈벡 이슬람 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세력에 대한 비인권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폭탄테러 등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3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없음

- OECD : 7등급 ('07. 1) → 6등급 ('08. 1) → 6등급 ('09. 1)
- Euromoney : 142/185 ('08. 3) → 161/183 ('08. 9) → 176/186 ('09. 3)
- I.I. : 130/174 ('07. 3) → 123/174 ('08. 3) → 128/177 ('08. 9)

※ 2008. 1월, OECD회의에서 대외 부채의 감소,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출상품 가격 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FDI 증가로 견조한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2009년은 동국 평가등급 변화 없음.

#####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제한적 인수가능
- Atradius : 제한적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 단기인수 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실적

#### □ 외채상환태도

- 정부는 공적채무 상환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공적채무를 상환 또는 만기연장하고 있음.
- 중장기채무가 대부분 정부보증 공적채무이고 최근 외환사정이 호전되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 IMF는 동국의 무역 및 외환통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며, 공식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한편, 2008년 12월, IMF 방문단은 동국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재정 정책 및 향후 경제 전망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금융개혁, 무역장벽 완화, 현지화의 평가 절상을 용인하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유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EBRD는 동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였고, 2006년 세계은행도 대출을 중단하였음. 그러나 EBRD는 농업, 금융, 관광, 중소기업 육성부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006년 3건, 4백만 유로, 2007년 8건, 17백만 유로를 직접 투자한 바 있음. ADB 역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국의 농업, 교통, 교육 부문 등에 4.5억 달러를 대출할 예정임.

## V. 종합의견

- 최근 수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등 양호한 기조를 이어왔으나, 2009년부터는 동국 역시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전히 금, 면화 등의 1차 산업과 러시아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고 수입제한 조치,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 등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내부적으로 카리모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통치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러시아, 중국 및 EU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정치·경제의 개혁·개방 및 투명성 개선 등 민주화의 진전이 더딜 뿐만 아니라 고령의 카리모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과 이슬람 과격단체 등의 활동이 수면 하에 내재되어 잠재적 불안을 안고 있음.
- 동국은 최근의 경상수지 확대에 따른 대외유동성 증가, 대외채무 상환여건 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폐쇄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음. 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의 둔화로 인해 원유, 가스 등의 상품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최대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의 경기 침체 전망으로 인해 향후 긍정적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국의 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D1'으로 부여하고자 함.

조사역    한종수(☎02-3779-6655)  
E-mail : [hanjs@koreaexim.go.kr](mailto:hanjs@koreaexim.go.kr)